

# 완도군,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지역경제 활력 기대

10월18~20일 24곳 경기장서 축구, 야구 등 선수 2만명 참가 정보 제공 공식 홈페이지 개설 전남도민 화합 도모 기회 마련

완도군이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2만명의 선수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원활한 체육대회 진행을 목표로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경기 일정,

주변 관광·숙박 업소 안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10월 열리는 '제36회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2024jd.co.kr/)를 개설했다.

'제36회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완도 공설운동장 등 24곳 경기장에서 열리며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24개 종목에 2만여 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첫 화면은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대축전 슬로건인

'치유의 섬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을 부각해 디자인했다.

홈페이지는 △대회 소개(개요, 경기장 안내 등) △행사 정보(개회식, 폐회식 등) △대회 정보(경기 종목, 일정 등) △개최지 안내(완도 관광 해양치유 등) △알림 마당(공지사항, 이벤트)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각각의 메뉴를 통해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관광, 음식, 숙박, 해양치유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회 기간에는 종목별 대진표, 경기 결과, 사진, 홍보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계

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으로 제작돼 손쉽게 볼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설군 이래 최초로 우리 군에서 전남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이번 대축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전남도민이 화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작은영화관 문 연다 26일부터 본격 운영

무안군은 최신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생긴다고 17일 밝혔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6층에 들어서는 '무안작은영화관'이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무안작은영화관은 1관 77석, 2관 106석 등 총 183석 규모의 상영관과 2D뿐만 아니라 3D 입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다. 팝콘, 음료수, 커피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매점도 함께 운영한다.

관람료는 2D 영화 7000원, 3D 영화 9000원으로 대형 극장가의 60~70% 수준 저렴한 관람료로 전국 동시 개봉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이다. 관람권 예매는 인터넷(무안작은영화관 검색)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관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참석자 대상 군민 초청 시사회가 열린다. 23~24일 읍면별 초청 대상자와 관내 어린이집 원아, 25일 군민 선착순 현장 무료 발권을 통해 시사회가 진행된다.

김산 군수는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영화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무안작은영화관을 작지만 큰 영화관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어린이 물놀이시설 20일 개장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진도군은 여름철을 맞아 진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오는 20일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위치한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야외물놀이장은 유아풀(수심 0.8m) 1개소, 아동풀(수심 1m) 1개소, 총 2개의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 비치 체어 등 휴식공간을 갖췄으며 오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28일간 무료 개방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월요일은 휴장하며 이용 방법은 운영사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전화예약을 필수로 해야 한다.

진도군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장 안전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욕수 교체, 탁도와 염소 수치 관리, 1일 150명 이용객 제한 등 수질관리 강화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진도군관계자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물놀이장이 어린이들이 물과 친해지며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오락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당부 목포시

목포시가 올해 7월 정기본 재산세로 재산세 10만9327건 186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7월 정기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나눠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되고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구간별로 0.05%씩 인하 적용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여름 영어 테마프로그램 운영 목포영어도서관

목포영어도서관은 오는 8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목포시와 인근 지역의 미취학 아동(6~7세), 초등학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술아, 영어랑 놀자' 강좌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익히고 관련 영어 도서를 읽은 뒤 영어를 흥미롭게 배우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도록 운영된다.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생이 다양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통해 호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호주 문화여행' 강좌를 수준별 3개 반으로 나눠 운영하며 성인 대상으로 해외여행 중에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여행 영어' 작품을 감상하며 영미권 문화를 접하는 '영미시' TV 프로그램을 보며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표현과 문화를 배우는 'TV쇼 영어' 등 3개의 강좌를 운영한다.

수강을 원할 경우 18일부터 24일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www.mokpolib.or.kr)에서 선착순 신청받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도서관 누리집(열린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11일 신안군 도초도 관계자들이 죽연리 갯벌 일원에 맹그로브 종자를 식재하고 있다. 신안군은 탄소흡수와 저장능력이 탁월한 맹그로브를 도입하기 위해 이날 시범 식재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탄소흡수원 맹그로브 종자 재배시험 연구

신안군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와 저장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Blue Carbon)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를 지역 내 도입하고자 지난 11일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현지 적응실험을 위한 맹그로브 종자를 식재했다.

도초도는 천혜의 청정해역의 해양생물 자원과 육상 생물자원의 종보전 및 서식지 보호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마을지구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도별 중점관리 시행 중이다.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신안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재배시험에서는 일본산 맹그로브 종자 120개체와 베트남산 400개체 등 총 520개체를 죽연리 갯벌에 시험 식재했다.

현재까지 현지 적응실험을 위해 이식된 맹그로브 종자는 잘 생육하고 있으며 식재 후 생장 특성과 우리 지역 갯벌과 기후환경에서의 적응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등근 맹그로브(Kandelia obovata)는 최저기온이 -10℃ 이상인 곳에서만 생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협소하므로 외래식물로서 생태계를 교란할 염려도 없다.

맹그로브가 우리나라 갯벌과 섬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신안의 탄소흡수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책 및 과학적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나 탄소중립에 있어 숲과 나무는 지대한 잠재력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발굴 및 확충이 필요하다"며 "맹그로브 도입을 통해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블루카본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강진군, 석면 위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최대 700만원

강진군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날림먼지가 발생해 장기간 노출 때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 폐증과 같은 석면 관련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군이 선정한 위탁사업자가 철거·처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가지 지원분야

주택 철거·처리, 비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에 대해 지원한다.

지자체가 위탁계약한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한 경우 사후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

주택은 가구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측사, 창고 등)은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는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한해 최대 500만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청정한 지역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비 소진 때까지 상시로 신청을 받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ilbo.com